

부산 화교의 가족 분산과 국적의 함의*

안 미 정**

| | |
|----|------------------------|
| 목차 | I. 시작 |
| | II. 한국화교의 역사와 부산 |
| | III. 부산 화교 가족의 이산과 분산 |
| | IV. 부산 땅에 앉아서: 가족의 정주화 |
| | V. 맺음 |

■ 국문초록

이 글은 한국 부산에 거주하는 화교 여성의 생애사를 통해 20세기 동북아 국가 간 정치적 변동이 개인의 생애에 미친 영향과 그 양상의 문화적 함의를 밝혀 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대다수의 한국화교들은 지역적으로는 중국 산둥성 출신이거나 그 후손들이며, 이들의 국적은 대만(중화민국)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고향, 거주지, 귀속 국가가 서로 다른 복합성은 이들의 역사가 동북아의 20세기 역사와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 화교이주사에서 나타나듯이 한반도를 오갔던 초기의 화교들은 경제적 활동을 목적으로 한 이동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부산의 화교들은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대규모의 집단적 거주지가 형성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후 냉전 체제 하에서 한국화교 인구는 계속 감소해왔다. 이 글에서 제시한 화교여성의 사례는 한국화교의 인구감소가 어떠한 맥락 속에서 전개되는 것인지 보여준다. 즉 부산에 거주하는 H씨와 R씨의 사례에서 이들의 가족은 부산에 거주하는 모친을 중심으로 대만에 사는 자식들과 하나의 생활세계를 형성해 간다. 가족 간에는 분산 양상이 나타나며 국적도 서로 다르다. 화교가족이 모두 함께 이주하는 것은 아니며, 모친은 현재의 거주지가 가족의 정주지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처럼 화교인구의 감소는 가족의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8-361-B00001).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HK연구교수 / gasirian@hanmail.net

집단적 이동형태가 아니라 가족의 분산 이동형태라 하겠으며, 이것은 동북아의 식민주의, 전쟁, 냉전체제 등이 낳은 정치변동과 국가 간의 불연속적 관계에 따른 가족집단의 대응이 아닌지 고려된다. 또한 가족 성원끼리 국적에 의한 갈등과 긴장은 여전히 동북아 역사적 긴장이 개인의 삶에도 배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대부분의 출신국과 거주국, 귀속국이 서로 다른 한국화교의 크로스보더성은 동북아의 역사와 정치적 지형을 반영하며, 민족국가에 의해 구분되는 국민이 아니라 ‘현지’의 거주자로서 사회적 위치를 조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주제어 한국화교, 동북아사, 한국전쟁, 가족 분산, 국적, 생애사, 부산

I. 시작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 부모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인’으로 성장한 사람에게 있어 자신의 국적을 고민한다는 것은 ‘보통’의 한국인에게 흔한 경험은 아닐 것이다. 단일민족과 단일국민이 별개의 것이 아닌 채 이것이 ‘한국민’(韓國民)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하나의 ‘범주(Boundary)’¹⁾ 역할을 하였다면 반면에 그 범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제 또한 그만큼 강고하게 작동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한국의 화교(華僑)²⁾는 약 3 세대에 걸쳐 한국에서 (태어나) 살아온 역사가

1) 이 글에서 범주라 함은 에스닉 바운더리(ethnic boundary)를 의미한다. 프레드릭 바스는 종족적(민족적) 정체성과 종족 집단의 유지 등은 사회적 상황, 상호작용하는 사회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종족 집단의 범주도 다른 문화 속의 개인들이 서로 사회적으로 접촉하는 상황에 의해 유지된다고 본다. Fredrik Barth(ed.), *Ethnic Groups and Boundaries: The Social Organization of Culture Difference* (Illinois: Waveland Press Inc., 1998), pp. 15~16.

2) 화교라는 용어는 19세기 말 이후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고대 중국인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당인(唐人), 화인(華人), 한인(漢人), 중화인(中華人), 화민(華民)의 호칭과는 구분된다. 근대 이후에 명명되기 시작한 화교는 경제적 역할에 따라 화상, 화농, 화공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법률적 신분에 따라 화교, 귀교, 화인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도 한다. 민족적·문화적 속성에 따라서는 화예와 화족이라고 하고, 최근 국가의 영역을 넘어 활동하는 화교의 성향에 의해 화교디아스포라라는 용어가 각광받고 있다. 최승현, 『화교의 역사 생존의 역사』(인천: 화약고, 2007), 90~91쪽. 일반적으로 화교는 “중화민국

2 역사와 경계 78(2011.3)

있으나 한국사회에서 이들은 혈통과 국적에 의해 다른 민족, 다른 국가의 국민으로 구분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화교는 동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들 지역으로 이주한 화교들의 출신지는 한국의 경우와 다르다. 화교의 분포는 이민사회와 출신지역 간의 깊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으며,³⁾ 한국화교의 경우 99%가 중국 대륙 출신이고 그 가운데 산둥성 출신이 90% 이상을 차지한다.⁴⁾ 그리고 이들은 중국의 산둥성(山東省)이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대만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오로지 대만을 ‘조국’으로서 인식하여 왔다. 이처럼 고향이 있는 중국이 아니라 대만을 조국으로 바라보는 한국화교의 ‘선택’에 있어 가장 깊은 영향을 미쳤던 것은 동아시아의 냉전체제였다고 지적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는 공산화한 중국대륙과 연결이 단절되어 반공진영에 속하는 중화민국(대만)의 영향 하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이다.⁵⁾

한국화교의 역사는 한국사에 한정되지 않고 동아시아사와 20세기 냉전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화교의 역사가 거주국의 역사와 관련시켜 연구하거나 화교 사회의 자체 발전과정을 연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왔지만, 만약 개별 국가사의 영역 안에서 화교의 역사를 다루게 된다면 그것은 “각 국가의 역사로 환원되기 때문에 공통성 보다는 특수성에 주목”하게 되고, 화교 사회 전반의 특색을 발견하고 국가 간 경계를 넘어 연동했던 역사를 밝힐 가능성은 축소되어버린다.⁶⁾ 따라서 한국화교의 역사는 고국과 거주국, 귀속국(국적을 두고 있는 국가)⁷⁾ 사이의 정치적·사회적 변동 및 제 측면을 유기적인 상관관계

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소지하고 외국에 정주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고 화인(華人)은 “거주국의 국적을 소지하는 중국출신자”로 구분하기도 한다. 王恩美, 『東アジア現代史のなかの韓國華僑』(東京: 三元社, 2008), 38~39쪽.

- 3) 이민사회와 출신지역 간에 나타나는 상관성은 지리적 인접성, 이민자를 모집한 주체가 지역 단위로 노동자를 모집하였다는 점, 먼저 정착한 자와의 관계 특히 동향관계를 통해 이주하였던 것을 이유로 들 수 있다. 李丙仁, 「近代中國의 海外移民과 ‘故國’」 『東洋史學研究』 103(2008), 161~162쪽.
- 4) 최승현, 『화교의 역사 생존의 역사』 253쪽.
- 5) 王恩美, 『東アジア現代史のなかの韓國華僑』 21~22쪽.
- 6) 李丙仁, 「近代中國의 海外移民과 ‘故國’」 146~147쪽.
- 7) 국적을 두고 있는 국가를 귀속국이라 부르기로 하겠다. 이는 국민으로서의 아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때 지역사회에 정주한 이민자들의 생활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은 중요하다. 개인은 국가와 분리된 주체가 아니며, 국가들 간의 외교 정치적 역학관계는 개인의 사회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생활의 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중국 산둥성 출신의 화교들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대다수가 대만의 국민이라는 점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고 또 다른 형태로 형성되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중국의 국공내전과 한국전쟁, 그리고 이어진 냉전체제하에서 한국은 대만과 수교 하였으나 냉전의 종식 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는 등 일련의 정치적 역학관계 변동은 한국화교의 생활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바꿔 말하여 개인의 생애 속에는 이러한 국가 간의 불연속적인 정치적 지형은 어떠한 영향을 미친 것이며 개인은 그 변동에 어떻게 대응하며 삶을 영위해 온 것일까?

지금까지 한국화교에 대한 연구는 종족 집단(ethnic group)으로서 정체성과 그들의 이동과 정착 및 네트워크, 차이나타운 등과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⁸⁾ 그리고 인천, 대구, 마산, 군산, 부산 등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화교의 이주와 정착 및 정체성을 다룬 연구들도 있다.⁹⁾ 여러 연구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것은 화교의 생활사와 생애사

이벤티티를 귀속한다는 의미에 한정한다.

- 8) 일부 연구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박은경,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화교의 Ethnic identity 문제」 『한국문화인류학』 11(1979), 145~161쪽. 박은경, 「화교의 종족 정체성과 이동의 관계」 『현상과 인식』 23 (1982), 180~216쪽. 이창호, 「한국화교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의 공간: 인천 화교의 관시(關係)와 후이(會)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4(2008), 75~122쪽. 이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네트워크와 차이나타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박기철, 「화교네트워크의 정치적 함의 연구」, 『中國學研究』 20(2001), 479~504쪽. 최승현, 「화교네트워크 연구의 현실적 의의」 『中國人文學』 37(2007), 549~568쪽. 이창호, 「차이나타운의 재개발과 의미의 경합: 인천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41(2008), 209~248쪽. 문성준·서 탁, 「인천차이나타운의 역할」 『한국언론학보』 52(2008), 5~24쪽. 한동수, 「인천 청국조계지 내 공화춘의 역사변천에 관한 연구」 『中國學報』 60(2009) 371~393쪽.
- 9) 부산 화교와 관련한 연구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김원경, 「釜山驛 商店街의 패턴1」 『한국지리학회지』 5(1999), 25~76쪽. 김태만, 『내 안의 타자(他者): 부산 차이나이스 디아스포라』(부산: 브레인스툼, 2009). 이종우, 『한국 화교의 현지화에 관한 연구: 부산 거주 화교를 중심으로』(부산: 동아대학교, 2007).

혹은 여성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¹⁰⁾ 한국화교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다양한 경험들이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부산 지역의 화교들의 경험을 한국화교라는 단일한 범주로서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주와 정주의 과정에서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양상이 있을 수 있고, 남성과 여성의 경험도 반드시 동질적이지 않다. 특히 여성의 구술이 갖는 의의는 여성들의 구술사를 ‘역사 없는 집단’으로 각인된 가부장제 사회 속 여성들의 침묵과 지워진 경험들을 의미 있게 역사화 하는 ‘역사 만들기’라는 점에 있다.¹¹⁾

부산의 화교가 한국화교의 역사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인천과 부산은 개항장으로서 외국 상인들의 거류지가 형성되어 왔던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 볼 때, 부산 화교 연구는 ‘개항장’에서 도시로 성장하여 온 역사 속에서 도시공간의 변화와 더불어 사람들의 생활세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의의가 있으리라 본다. 또한 최근 한국사회의 ‘다문화’ 담론이 동화와 경제적 이익에 방점을 두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이 연구는 한 사회 안에서 타자로 분류되는 민족 집단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도움으로써 결국 자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문화적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이 이 글에서는 화교가 부산으로 이주, 정착하게 되는 과정과 한국에서 또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여성의 생애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화교 여성의 생활사를 생애주기에 따라 나열하기 보다는 동북아시아의 역사적 변화와 인구변동을 배경으로 하여 상호 관련 속에서 서술해보고자 한다. 생애사 혹은 개인의 생활사는 한 사람의 구술이라는 점에서 개인에게 한정된 경험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개인은

장세훈, 「부산 속의 아시아」 부산 초량동 중화가의 사회생태학적 연구 『경제와 사회』 81(2009), 300~373쪽. 황보영희, 「부산 淸國租界地에 관한 연구」 『港都釜山』 25(2009), 411~425쪽.

- 10) 한국화교의 생활사와 생애사적 접근은 다음의 두 연구를 예로 들 수 있다. 김중규, 「화교의 생활사와 정체성의 변화과정: 군산 여씨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0-2(2007), 111~150쪽. 許点淑, 「在韓華僑社會のエスニック・アイデンティティの形成と變容: 言語生活 職業變遷 婚姻觀念 中心に」 『동북아문화연구』 11(2006), 227~244쪽.
- 11) 김성례, 「한국 여성의 구술사: 방법론적 성찰」 『젠더, 경험, 역사』 조옥라·정지영 편(서울: 서강대출판부, 2004), 29쪽.

단순히 한 사회의 부분이거나 반영물이 아니며, 한 개인의 생애는 역사적 주체로서 개인을 사회적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II. 한국화교의 역사와 부산

1. 한국 사회 변동과 화교

부산 화교의 역사는 한국화교의 큰 흐름과 함께 전개되어 왔다. 한국 화교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지금의 화교의 역사를 조망하는 의미도 있으며, 또한 지금의 화교들은 한 곳에 줄곧 정착해 온 것이라기보다는 한국사회의 변동과 함께 그들의 이동도 계속되어 왔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한 지역 화교들의 역사는 곧 다른 지역의 화교사의 한 부분이기도 하면서 이를 상호 유기적 관련성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국화교의 역사는 임오군란(1882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때 군함 3척, 상선 2척에 3,000명의 병력과 함께 온 40여 명의 상인들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공식적으로 통상조약(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 이하 장정)이 맺어진 1882년을 기점으로 삼기도 한다. 장정의 체결로 청국은 개항장에 가옥을 빌리고 토지소유의 권리를 가지게 되었으며, 한성(서울)에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조선의 내륙 지방에서도 상품을 매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1876년 조일수호조약(朝日修好條約, 강화도조약) 체결 후 일본은 조선과의 무역을 독점하고 그 한편으로 한반도 내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시켜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곧 19세기 말 한반도에서 조선상인 외에 청나라 상인과 일본 상인들이 무역에서 경합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다고 하겠다.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 하에서도 화교들의 상업 활동은 이어졌으며,¹²⁾ 이어서 해방 후 이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차별과 배제, 그리고 중

12) 이에 대한 연구로서는 韓洵의 『韓國開港期の 商業研究』(2003, 한국학술정보[주])를 참조하였다.

국 대륙과 한반도를 축으로 형성된 냉전체제는 화교의 또 다른 이동에 영향을 미쳤다. 종족성(ethnicity)¹³⁾의 관점에서 박은경은 한국의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시기를 한국화교의 이동기로 보며, 이 시기 화교들은 그들의 종족 정체성 보존을 위하여 미국과 대만으로 이주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¹⁴⁾ 이렇듯 한 세기에 걸쳐 한반도를 거쳐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간 한국화교들의 역사적 흐름에 대해 여러 연구자들은 경제적 변동과 이동의 형태, 또는 특성을 중심으로 시기를 구분해 왔다.¹⁵⁾ 이러한 시기의 구분은 한반도에서 활동하던 화교의 경제활동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기본적으로 조,청,일(한,중,일)의 상호 정치적 변동에 의해 초래된 것이다.

따라서 한국화교의 역사적 전개, 특히 이들의 이동을 살펴봄에 있어서 3국의 정치경제적 변동은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한다. 이미 한국화교 연구에서 이러한 국가의 정치적 변동은 자주 언급되어 왔으나 그것은 일국사의 변동 속에서 화교사회를 바라보는 경향이 짙다. 한국의 화교는 한국사회에 정주하고 있으나 이들의 역사와 생활은 다국적 역학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주요하게는 한·중·일 3국의 정치적 변동과 유기적 관련 하에서 조명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선, 3국의 정치적 역학관계의 변동을 국가 간의 주요한 사건(협정과 전쟁 등)으로 보고 이에 의한 한국 화교사회의 인구 및 경제활동의 변동을 관련지어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13) 에스니시티는 종족성과 민족성으로 번역되곤 하지만 한국어에서 민족(nation)의 의미와 중첩되고, 부족사회를 연구해 온 인류학적 전통 속에서는 종족(種族)으로서 부족(tribe)의 의미와도 중첩된다. 종족성은 종(種)이라는 생물학적 의미에 의해 그리고 부계친 집단을 이르는 종족(宗族)과의 혼동을 피하고, 또한 민족은 민족국가의 성원으로서 국민으로 번역되는 한계가 있어 발음 그대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창호, 「한국화교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의 공간」, 76쪽. 이 글에서는 문맥에 따라 종족성과 민족성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14) 朴銀瓊, 「화교의 종족 정체성과 이동의 관계」 190쪽. 王恩美, 『東アジア現代史のなかの韓國華僑』 27쪽.

15) 朴銀瓊, 「韓國 華僑 社會의 歷史」 『震檀學報』 52 (1981), 97~128쪽. 양필승·이정희,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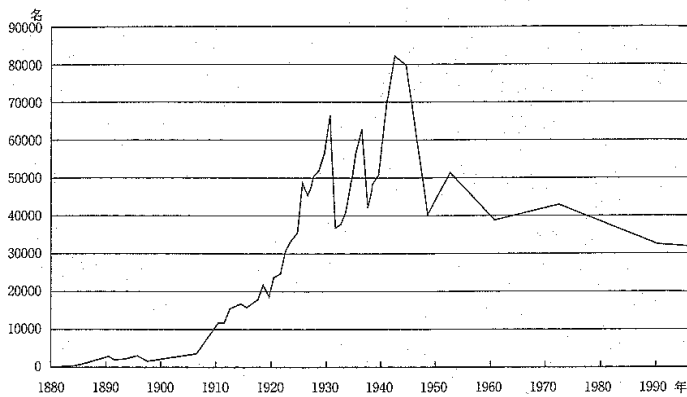
〈표 1〉 3국의 정치적 변동과 한국화교 사회의 변화¹⁶⁾

| 시기 | 주요 사건 | 사회적 변화 |
|----------------------|------------------------------|--|
| 1882년, 1883년 | 장정 체결, 내지 행상권 부여 | 공식적 화상(華商)의 한반도 진출, 외국인의 내륙지역 행상 가능. 내지의 거주는 불허. |
| 1910년 | 한일합병 | 일본 식민지내 중국 화상의 제한적 상업 활동 전 개(비단과 삼베 수입 판매) |
| 1931년 | 만보산 사건* | 화상에 대한 반감 증가(排華). 서울, 인천, 대구 등 주요 도시 화교 급감, 전국 평균 화교인구 감소율 46%. 일부 회복됨에도 대 구 화교 경제는 몰락. |
| 1937년 ~ 1945년 | 중일전쟁 | 화교들의 중국무역 단절, 화교경제 몰락. 화교는 일본의 적국 국민화. 조선과 중국 간 왕래 차단, 입국증명 법률 공포, 중일전쟁 이전 중국으로 갔 던 화교의 재입국 불가. 가족 이산이 발생. |
| 1945년 ~ 1949년 | 해방, 미군정, 중국 국공내전 | 미군정하에서 남한의 화상경제 전개, 화상의 무 역 독점, 산둥~황해간 밀무역 성행. 중국 국공 내전 격화, 국내 화교 증가, 외국인 입출입과 등 록에 관한 법률 공포(1949) |
| 1950년대 | 한국전쟁, 대만 교류 | 전쟁으로 부산에 화교 자치구(‘화교촌’) 형성. 부 산 화교 중학교 설립(1954), 대만 판사처(辦事處) 설립(1957) |
| 1960년 ~ 1980년대 | 반공체제하 도시 간 교류와 외국인활동제한 | 대만의 카오슝시(高雄市)와 부산 자매결연(1966 년), 대만 총영사관으로 승격(1987년). 외국인 토 지법 공포(1968)와 중국 음식점 쌀밥 금지령 공 포(1973) 등 사회적 활동의 제한. |
| 1990년대 | 한중수교와 대만 단교 | 중국 수교(1992), 대만 단교(주부산 영사관 폐 쇄), 대만대표부 개설(서울, 1994) |
| 2000년 이후 | 정치적 관계 회복, 차이나타운 개발 | 대만대표부 부산 판사처 설립(2005), 부산시-가 오슝시 결연 40주년 행사(2006), 부산 차이나타 운 개발 확정(2007), 재한화교 한글과 영문명 표 기 외국인등록증 발급(2007). |

16) 기존 연구 논문과 저서 외에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참조하였다. 영남일보, <대구 화교 100년 그들의 발자취와 희망 1> (2005.9.7.). 부산일보, <부산 속의 세계, 세계 속의 부산: 대만과 한국> (2006, 9.2.). 파이낸셜뉴스, <부 산 동구 차이나타운 세계적 관광지로 개발> (2007.9.26.). 법무부, <보도자 료: 영주권 취득이 보다 쉬워졌습니다>(2008.8.4) 등을 참조하여 재구성 하 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흐름에서 보듯이, 한국 화교사회는 동북아의 전쟁과 외교적 긴장과 마찰, 그리고 새로운 교섭과 조정이 전개되는 가운데 형성되어 왔다. 국가별 이해관계는 민족감정을 앞세워 사회적으로 배타적인 상황으로 조장되기도 하였고(만보산 사건),¹⁷⁾ 내전과 동북아시아의 냉전 속에서 한국화교의 인구이동과 이들의 경제활동은 부침(浮沈)을 거듭해 왔다. 20세기 동아시아 정치지형의 변동은 국가들 간의 외교단계의 연속과 단절 등의 불연속적 관계가 이어져 왔으며, 이는 또한 한반도로 이주한 화교의 가족 및 제반 사회관계의 불연속적 변동과도 긴밀한 상관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의 <표 2>를 보면 그것은 보다 명확해진다. 이 표는 한국화교의 인구를 1세기에 걸쳐 나타낸 것으로 이 그래프의 굴곡은 곧 화교사회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표 2> 한국(조선)화교 인구의 변동(1880~1996)¹⁸⁾



- 17) 만보산 사건은 1931년 7월 2일 중국 지린성 장춘현 만보산 지역에서 한인 농민과 중국 농민 사이에 일어났던 충돌사건이다. 이는 우발적 분쟁이 아니라 일본의 의도적 도발로 일본은 조선인과 화교의 모순을 이용하여 식민체제에 대한 조선인의 불만을 화교에게 전가시켰던 것이다. 이 사건이 여러 지역에 있던 화교들을 학살하는 폭동으로 전개된 배경에는 화교의 경제적 지위 하락과 조선총독부의 통제와 압박 등 화교 전반에 대한 문화적 편견이 노골화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孫承會, 「1931년 植民地朝鮮의 排華暴動과 華僑」 『中國近現代史研究』 41(2009), 163~164쪽.
- 18) 千田稔·宇野隆夫 編, 『東アジアと半島空間: 山東半島と遼東半島』(京都: 思文閣出版, 2003), 315쪽.

한반도의 화교 인구는 19세기 후반부터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며 1920년대에 이르러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 초반부터 1950년대 초반까지 약 20년 사이에 화교인구는 증가하다 감소하기를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하였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던 때는 1930년 후반에서 1940년대 말에 걸치는 약 10년 사이로 만보산 사건, 중일전쟁, 중국의 국공내전이 있었던 시기이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해방 이전과 달리 소폭이나마 증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1990년대 까지 계속 감소추세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1931년 만보사 사건으로 처음 크게 감소하였던 화교인구 수는 90년대까지도 회복하지 못하였다. 한국 화교의 역사가 1세기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감소 경향은 한국 화교가 아직도 사회적으로 정주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태어난 2-3세라 하더라도 이들은 계속 한국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화교들의 집단적 거주지가 형성되었던 부산의 화교 인구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부산 화교의 인구 변화

1876년 부산항 개항을 시작으로 원산, 인천 등 주요 항구에 외국 상인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개항지는 외부세력이 들어가는 관문으로서 이주한 화교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한 공간이기도 하였다. 다만, 20세기 초 까지 이들 개항지는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정주지로서 보다는 상업거래를 위한 거점의 역할을 하였다. <표 3>에서와 같이, 개항 후 부산에 화교들이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1884년으로 보지만 이에 앞서 이미 이곳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청국사람들이 있었다. 1883년 당시 일본 영사는 일본인의 무역독점을 위해 항구에서 활동하던 청국 상인들의 무역활동을 제지하였다고 한다.¹⁹⁾ 청일 양국의 상인들은 기본적으로 조선 내에서 하나의 '시장'을 두고 경쟁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

19) 중국 상민 2인이 부산에 와서 일본 상민의 점방 한 칸을 빌려 洋貨 무역에 종사코자 하였을 때, 일본영사가 이들을 체포하여 신문(訊問)하고 해당 가게를 폐쇄한 사실이 있어 청국은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 韓 祐 勳, 『韓國開港期の 商業研究』 47쪽.

들의 관계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 보완적 이해관계를 형성하기도 했었다. 가령, 이 시기 부산의 청국인들은 무역업자와 해조(海藻) 채취자 및 어부들로서, 이들은 봄에 블라디보스토크로 갔다가 가을에 돌아오곤 하는데 이들의 왕래로 말미암아 일본 선운업자(船運業者)들이 이익을 보고 있었다.²⁰⁾ 곧 1884년 이전 이미 부산을 거점으로 왕래하던 청국인들이 있었고, 이들은 일본 상인들과 상호경쟁적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보완적 관계 속에서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었다.

〈표 3〉 주요 도시의 개항년도 및 화교의 이주년도²¹⁾

| 도 시 | 개항년도 | 도 시 | 이주년도 |
|-----|------|-----|------|
| 부 산 | 1876 | 서 울 | 1882 |
| 원 산 | 1880 | 인 천 | 1883 |
| 인 천 | 1883 | 부 산 | 1884 |
| 목 포 | 1897 | 원 산 | 1884 |
| 진남포 | 1897 | 목 포 | 1893 |
| 군 산 | 1899 | 진남포 | 1897 |
| 성 진 | 1899 | 군 산 | 1899 |
| 용암포 | 1906 | 대 구 | 1905 |
| 청 진 | 1908 | 신의주 | 1906 |
| 신의주 | 1910 | 청 진 | 1908 |

한편, 1894년 당시 모든 개항장에서 일본상인이 상권을 장악하고 그 수가 청국 상인보다 많았음에도 청국 상인의 무역규모는 결코 일본 상인에 비해 작은 것만도 아니었다. 원산의 경우 청국 상인 40여 명(6家)이 거래한 수출입 금액은 79만원으로 일본 상인 600여 명(100 家)의 수출입 총액 80여만 원에 맞먹었다.²²⁾ 개항이후 20세기 전 한반도에서 활약하던 청국의 상인들은 일본상인들에 비해 아직 조선에서의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점차 일본이 한반도에서 정치적 지배력을 강화해감에 따라 이들의 활동도 단지 상업적 경쟁만이 아니라 정치적 긴장관계 속에 전개되

20) 韓沽勳, 『韓國開港期の 商業研究』 48쪽.

21) 이정희, 「20세기 전반기 대구지역 화교의 경제적 활동」 『大丘史學』 80(2005), 75쪽.

22) 韓沽勳, 『韓國開港期の 商業研究』 49쪽.

였으리라 짐작된다. <표 4>는 개항지를 거점으로 살았던 청국인 수를 나타낸 것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청국인들이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개항지의 화교인구(1883년~1893년)²³⁾ (단위: 명)

| 年度 | 漢城 | 仁川 | 釜山 | 元山 | 計 |
|------|-------|-----|-----|----|-------|
| 1883 | 49 | 63 | - | - | 112 |
| 1884 | 352 | 235 | 15 | 64 | 666 |
| 1885 | 108 | 48 | 17 | 91 | 264 |
| 1886 | 119 | 205 | 87 | 57 | 468 |
| 1891 | 751 | 563 | 138 | 37 | 1,489 |
| 1892 | 957 | 637 | 148 | 63 | 1,805 |
| 1893 | 1,254 | 711 | 142 | 75 | 2,182 |

이 무렵 한반도에서 활동하던 청국상인들은 오늘날 한국의 화교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이들의 출신지와는 비교적 달랐다. 1883년에서 1886년 사이 조선의 청국상인들은 산동보다는 오히려 광둥과 절강 등의 남방출신들이 더 많았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1880년대 한반도에서 활동하던 청국상인들은 주로 중국의 남부지역 출신들이 북부지역 출신들보다 많았다. 지역으로 보면, 남부의 강남과 절강 출신의 상인들과 북부의 산둥 출신의 상인들이 많았다. 즉 오늘날 한국화교의 90% 이상이 산둥지역 출신이라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19세기말 한반도의 청국인들은 보다 다양한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한국 화교 사회의 형성은 다양한 변화 속에 전개되어 온 것임을 감안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화교의 대다수가 산둥지역 출신인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1920년대부터 한반도에서 산둥성 출신의 화교인구가 급증한 것은 인천항과 가까운 지리적 근접성(400km), 산둥성 인구의 조밀화, 중국 내의 전란, 은화 폭락과 물가상승, 각종 재해가 발생하는 등의 요인이 있었다. 반면 당시 조선을 식민지화 한 일본은 산미증산계획에 의한 수리정

23) 王恩美, 『東アジア現代史のなかの韓國華僑』 46쪽.

비사업과 철도, 도로 공사에 등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산동성 출신의 노동자들이 급증하게 된 것이다.²⁴⁾

〈표 5〉 청국상인수와 출신지(1883년~1886년)²⁵⁾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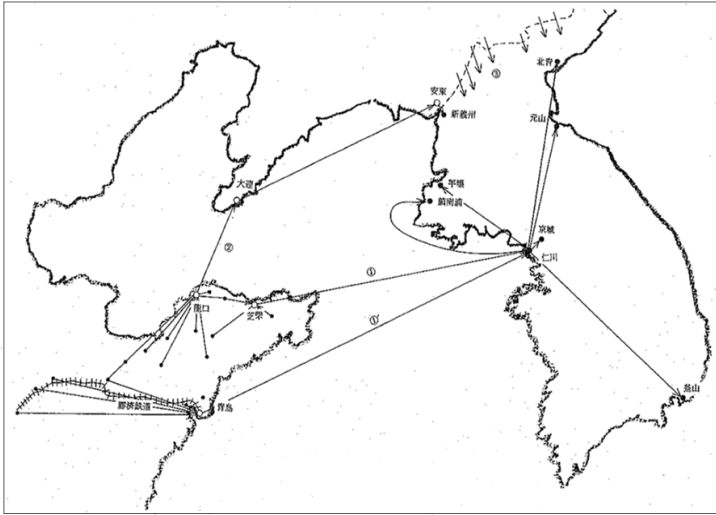
| 출신지 | 개항지 | 仁川 | | | | 釜山 | 漢城 | |
|------------------|--------|------|------|------|------|------|------|--------------|
| | 연도 | 1883 | 1884 | 1885 | 1886 | 1886 | 1885 | 1886 (용산) |
| 남 방 출 신 | 廣東 | 11 | 63 | 29 | 37 | 39 | 5 | 9 |
| | 浙江 | 10 | 28 | 14 | 50 | 11 | 29 | 14 |
| | 江蘇 | 4 | 10 | 4 | 13 | 4 | 9 | 10 |
| | 江西 | - | 3 | - | 7 | 1 | 2 | 2 |
| | 湖南 | 1 | 2 | 2 | 3 | - | 3 | - |
| | 湖北 | 3 | 5 | 1 | 12 | 2 | 2 | 10 |
| | 福建 | - | - | - | - | 12 | - | - |
| 북 방 출 신 | 山東 | 3 | 90 | - | 79 | 11 | 55 | 65 |
| | 河南 | - | - | - | 1 | - | - | 4 |
| | 直隸(河北) | 1 | 1 | - | 1 | 2 | 4 | 3 |
| | 安徽 | - | - | - | 2 | - | - | 3 |
| | 北京順天府 | - | - | - | - | - | 1 | - |
| 합계 | | 33 | 202 | 50 | 205 | 82 | 110 | 120 |

당시 산동반도에서 한반도로 이동하였던 주요 경로는 <그림 1>과 같다. 산동성의 지부(芝罘)에서 바다를 건너 인천으로 오거나 청도(靑島)에서 인천으로 오는 경로(①, ①'번), 혹은 산동성 용구(龍口)에서 대련, 안동으로 건너 후 신의주로 가는 한반도로 오는 경로(②번), 그 외 대륙에서 직접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오는 경로(③번)와 가 있었다.²⁶⁾ 이러한 유입경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 주요 경로일 뿐 이외의 다양한 루트가 있었을 것이다.

24) 千田稔·宇野隆夫 編, 『東アシアと半島空間: 山東半島と遼東半島』 316쪽.

25) 王恩美, 위의 책, 55쪽.

26) 1927년 한반도로 온 인구를 각 경로별로 보면, ①, ①'번 경로를 통해서는 약 3만 7천 명, ②번 경로로는 5만 4천 명, ③번 경로로는 8천 2백 명이 들어왔다. 千田稔·宇野隆夫 編, 『東アシアと半島空間: 山東半島と遼東半島』 316~319쪽.



〈그림 1〉 1920년대 이동 경로²⁷⁾

위 그림에서 부산은 인천을 통해 이동하게 되는 두 번째의 거점으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부산은 상해(上海)와 훈춘(琿春), 나가사키(長崎)로부터 온 상인들이 인천, 원산을 잇는 중계거점이었²⁸⁾ 점을 고려한다면 보다 주요 경로 외에 더욱 다양한 경로(항로)를 통한 이동이 이루어져 왔다고 하겠다.

이처럼 한반도에서 활동하던 화교 인구가 급증한 1920년대를 화교사회가 정주형 사회로 이행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²⁹⁾ 그러나 화교 가족이 재생산되는 정주형 사회는 아니었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1930년대 말까지도 화교 남녀의 성비는 불균형을 이루며, 당시 한국여성과의 혼인이 많지 않았고, 주로 상업과 노동에 종사하였던 화교들은 지리적 인접성으로 쉽게 귀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³⁰⁾

27) 千田稔·宇野隆夫 編, 위의 책, 317쪽.

28) 문은정, 「20세기 전반기 馬山地域 華僑의 이주와 정착」 『大丘史學』 68(2002), 158쪽. 정혜중, 「開港期 仁川 華商 네트워크와 華僑 정착의 특징」 『中國近現代史研究』 36(2007), 15쪽.

29) 王恩美, 『東アジア現代史のなかの韓國華僑』 93쪽.

30) 朴銀瓊, 「韓國 華僑 社會의 歷史」 104~106쪽.

〈표 6〉 해방 이전 부산의 화교 인구수³¹⁾

| 연도 | 전국(명) | 부산(명) | 구성비(%) |
|------|--------|-------|--------|
| 1884 | 666 | 15 | 2.2 |
| 1885 | 264 | 17 | 6.4 |
| 1886 | 468 | 87 | 18.5 |
| 1891 | 1,489 | 138 | 9.2 |
| 1892 | 1,805 | 148 | 8.1 |
| 1893 | 2,182 | 142 | 6.5 |
| 1923 | 33,654 | 333 | 0.9 |
| 1942 | 82,661 | 230 | 0.2 |

화교 인구는 1890년대에 들어서 급증하였으나 부산은 이들 화교가 활동하였던 주 무대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화교 인구가 지속적으로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구성비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해방 후 이러한 상황은 바뀌었다. 1950년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부산에는 피난을 온 화교들이 모여살 수 있도록 집단적 거주지가 형성되었다. 〈표 6〉은 해방 후 부산의 화교 및 대만국적 외국인 수를 나타낸 것으로, 이 표를 보면 1948년 493명에 불과하던 인구가 1952년에는 4,182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 인구는 〈표 7〉에서 보듯이, 1967년과 1972년 사이에 감소하며 70~80년대 잠시 증가하였지만 1980년대 이후 다시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처럼 한국전쟁을 계기로 많은 수의 화교인구가 부산에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나 이후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정주하기보다는 국내외 타지로 재이주하고 있다.

〈표 7〉 해방 후 부산의 화교 및 대만국적 외국인수³²⁾

| 연도 | 전국(명) | 부산(명) | 구성비(%) |
|------|--------|-------|--------|
| 1948 | 17,430 | 493 | 2.8 |
| 1952 | 17,925 | 4,182 | 23.3 |
| 1958 | - | 3,632 | - |
| 1962 | 23,575 | 3,705 | 15.7 |

31) 1884년~1893년 통계는 王恩美, 『東アジア現代史のなかの韓國華僑』 46쪽. 1923년과 1942년 통계는 朴銀瓊, 『韓國華僑社會의 歷史』 104쪽, 108쪽. 단 1942년 부산 화교인구는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釜山市史』 제3권 (부산: 대원인쇄문화사, 1991), 1364쪽.

| | | | |
|------|--------|-------|------|
| 1967 | - | 3,593 | - |
| 1972 | 32,989 | 2,850 | 8.6 |
| 1977 | 31,751 | 3,510 | 11.0 |
| 1980 | 29,623 | 3,708 | 12.5 |
| 1988 | 24,088 | 2,498 | 10.3 |
| 1989 | 23,828 | 2,434 | 10.2 |
| 1990 | 23,582 | 2,409 | 10.2 |
| 1990 | 23,582 | 2,409 | 10.2 |
| 1991 | 23,464 | 2,380 | 10.1 |
| 1992 | 23,479 | 2,349 | 10.0 |
| 1993 | 23,461 | 2,293 | 9.7 |
| 1994 | 23,259 | 2,204 | 9.4 |
| 1995 | 23,265 | 2,191 | 9.4 |
| 1996 | 23,283 | 2,147 | 9.2 |
| 1997 | 23,150 | 2,108 | 9.1 |
| 1998 | 22,928 | 2,064 | 9.0 |
| 1999 | 22,985 | 2,054 | 8.9 |
| 2000 | 23,026 | 2,039 | 8.8 |
| 2001 | 22,791 | 2,014 | 8.2 |
| 2002 | 22,699 | 1,947 | 8.5 |
| 2003 | 22,585 | 1,960 | 8.6 |
| 2004 | 22,285 | 1,890 | 8.4 |
| 2005 | 22,178 | 1,856 | 8.3 |
| 2006 | 22,118 | 1,840 | 8.3 |
| 2007 | 22,047 | 1,820 | 8.2 |
| 2008 | 21,789 | 1,765 | 8.1 |
| 2009 | 21,698 | 1,740 | 8.0 |

이처럼 한국 화교의 재이주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이동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며, 또 한국전쟁 이후 이들에게 부산이란 어떠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일까? 두 여성의 생애사 속에서 그 의미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32) 1948년, 1952년 통계는 王恩美, 『東アジア現代史のなかの韓國華僑』 156쪽. 1962년~1980년까지 전국 통계는 양필승·이정희,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 91쪽. 1958년~1980년 부산 통계는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釜山市史』 1364쪽. 1988년 이후 통계는 각 연도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집계한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에서 국내 거주, 체류하는 대만 국적의 외국인 인구수를 나타낸 것이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www.moj.go.kr 2011년 1월 19일 검색).

III. 부산 화교 가족의 이산과 분산³³⁾

한국전쟁을 피해 모여든 전국의 화교들은 부산시내 세 곳에 집단적 거주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부산역 맞은 편 초량과 서면, 양정은 현재 부산시의 도심으로 전쟁 초기부터 피난 온 화교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다. 이들 각각의 지역에 화교자치구를 “충효촌”, “신촌”, “인애촌”이라 불렀는데 하나의 화교 ‘마을’인 셈이다. 이들 거주지가 만들어진 과정에는 중화민국(대만)의 영향이 컸다.

충효촌은 1952년 7월부터 공사하여 10월에 완성되었는데 이때 건설 자재들은 주한미군민정보도사령부(駐韓美軍民政補導司令部)가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건설비용은 대만 측의 기부금과 중화민국대사(王東原)의 부임 후 설립된 재교구제위원회(災僑救濟委員會)의 모금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또한 원산으로부터 거제도에 이주하였던 화교들의 이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56년 5월 ‘인애신촌’이 만들어졌으며 이 또한 재교구제위원회에 의해서 건설된 것이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 주요기관들과 지도자들은 다시 서울로 귀환하였으나 생활기반을 잃은 피난화교들은 부산에 그대로 거주하는 자가 많았으며, 결국 한국전쟁은 화교들의 국내이동에 있어 주요한 한 계기였다고 말 할 수 있다.³⁴⁾

1980년대 도시재개발로 인해 이들 지역에는 아파트와 빌딩이 들어서게 되었고 거주하던 화교들은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다. 2010년 현재 부산광역시 내에서 화교의 주요 거주지로 알려진 곳이 부산시 엄궁동에 소재하고 있는 “로얄화교아파트”이다. 이곳은 서면 신촌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이 집단이주한 곳이다. 이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세워진 높은 기둥에는 “엄궁로얄화교아파트”라고 쓰여 있으며, 양쪽 기둥에는 대만 영사

33) 이 글에서 가족의 이산(離散)과 분산(分散)을 따로 표현한 것은 이산이 개인의 의지와 무관히 강제된 상황에 따라 결과한 현상이라면 상대적으로 분산은 개인의 선택적 의지가 작용한다는 점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34) 王恩美, 『東アジア現代史のなかの韓國華僑』 158~159쪽. 이 책에서 서면 “신촌”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반면 부산의 한 화교를 인터뷰한 자료에 의하면 인애촌과 신촌은 비슷한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태만, 『내 안의 타자(他者): 부산 차이나이스 디아스포라』 157쪽.

의 비문도 새겨져 있다.³⁵⁾ 언덕바지에 자리하고 있는 이 아파트는 처음 세워질 당시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산 속”같은 곳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이 아파트는 주변의 또 다른 아파트들로 둘러싸여 있다. 단 두 개의동에 총 85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나 약 40세대 가량만이 화교 세대이다.³⁶⁾ 거주하는 화교들은 대개 고령에 이른 독거노인들이며 남성은 1-2명에 불과할 뿐 거의 모두가 여성들이다. 이들은 종종 대만에 있는 자식들을 방문하기도 한다.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 하나와 관리사무실이 있으나 언제나 고즈넉하였다. 이곳이 부산의 대표적 화교 거주지라고는 하나 입주자의 반 세대 가량이 한국인이며, 거주하는 화교들도 대만을 왕래하는 등 피난으로 인해 모여 살았던 과거와는 크게 달라져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자는 2010년 화교 아파트 관리사무실의 소개로 H씨(69세)와 R씨(76세)를 만날 수 있었다.³⁷⁾

1. 전쟁과 가족의 이동

H씨(69세)는 1942년생이며(호적상으로는 1943년), 부모의 고향은 산동성의 “이정”이라고 부르는 곳이다. “전쟁”을 피해 온 아버지는 평안도를 거쳐 원산으로 왔으며 이곳에서 그녀를 낳았다. 그러나 아홉 살이 되던 해 한국전쟁이 일어나 그녀의 가족들은 부산(서면)으로 왔다.

A(연구자): 아버님이 맨 처음에 어디로 오셨어요?

B(H씨): 이북에 원산 있는데, 산동, 맨 처음 우리 아버지 산동에 있지? 있다가 전쟁 일어나고 피난와가지고 평안도 원산, 자꾸자꾸 피난하러 나왔지. 나는 이북 원산에서 낳았어. 나도 또 피난 나오다가 서울에 있어서. 서울 살다가 아홉 살 때 육이오 사변 터졌잖아. 사변이 터져가지고 부산에 왔어. 그~노무 기차 두타(?)를 타고 부산에 왔다! 맨 꼭대기 눈 평~

35) “中華文化源遠流長承先祖”(우측), “故國河山千秋萬世傳子孫”(좌측), “中華民國駐釜山領事館領事 呂永美, 1988년 11월 19일”(좌측 하단).

36) 김0련씨 인터뷰 내용, 2010년 5월 20일, 엄궁동 관리사무실에서.

37) 이 글에 실린 R씨의 인터뷰 자료는 2010년 6월 13일 관리사무소에서, H씨의 인터뷰 자료는 2010년 11월 28일 엄궁동아파트 자택에서 이뤄진 것이다.

평 와가지고(웃음).

A: 예~고생 많으셨네요?

B: 응.

A: 그래도 무사히 서울을 나오셨네요?

B: 그래도 식구 같이 안 빠져 나왔지. 두 번! 우리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같이 나왔고. 할머니 작은 아버지, 우리 고모하고 우리 삼촌하고 먼저 나오고, 뒤에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뭐 이노무 전쟁 터져서 와가와가 그러라. 오~래오래 있다가 같이 만났어.

A: 만나 곳은 어디서 만나셨어요?

B: 우리 전부 저 서면 있잖아! 상고 뒤에 기차길 하나 있지요? 지금은 그거 롯데 보전(?) 뒤에. 몇 층 올린 집에 옷도 팔고, 거기 피난민 그거 수용소! 가마떼기 처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A: 거기서 만난 거예요?

B: 거기서 피난 와가지고, 자꾸자꾸, 여 한가지잖아 여 갈 데 없잖아! 한국 사람이 우리 안 도와주잖아. 그래가지고 중국사람이 대만도 신청해가지고 피난하러 오고, 오짜오짜 해가지고 한 뭉통이 대만도 가고 우리 시아버지 대만 갔볼었고 우린 한국 왔고 다 뿔뿔이 헤어지고. 전쟁 일어난 거 한 가지 피난도. 그때 집이 없어. 지금은 여 집이 있지 그땐 집이 없어. 전부 가마떼기! 밑에도 가마떼기 피고, 옆에도 이집도 저집도 보면, 저 보루하코, 그걸로 막아가지고...거 갖다가 이젠 로얄아파트, 집이 있잖아 하코방 모양, 이층 삼층 짓고...뭐 세븐 해 놓은 것도 있고, 그때 로얄아파트 땅 비쌌잖아, 바퀴달래 우리 아파트 지어주고 이 땅 우리 주고.

A: 누가 바꿔 달래요?

B: 로얄아파트. 로얄 회사. 우리 동네 이장하고 얘기해보고 느그 아파트 지어주고 이땅 우리 주고, 아무 조건 없고! 이사 가고 우리 다 이사해주고. 그래서 우리 여기 이사 왔어.

이 이야기는 해방이전부터 시작하여 198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시간의 폭을 안고 있으며, 친정아버지와 자신의 부부, 그리고 시아버지가 이동한 산동과 원산, 서울, 부산, 대만이 열거되며 그녀의 생애사 속 의미 있는 공간으로 분포하고 있다. 그녀 자신을 포함하여 시댁 가족의 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한국전쟁이었으며, 이에 앞서 친정아버지는 중국의 “전쟁”으로 인해 한반도로 피난 온 것이라 하였다. 그녀의 시아버

지 또한 부산에서 대만으로 간 것은 한국전쟁 직후였다. 따라서 H씨의 가족사 속에 이러한 이동의 가장 큰 요인은 중국과 한반도에서 일어난 20세기 전반의 ‘전쟁’ 때문이었다고 하겠다. 아울러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친정과 시댁 가족은 크게 산둥, 원산, 서울, 부산 서면, 엄궁동으로 이어지는 궤적과 부산 서면에서 대만으로 이어지는 양 갈래를 볼 수 있다.

고향이 전북 정읍인 R씨의 남편(Y씨)도 산둥성 출신으로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군 부대 내 오야봉이 한국으로 가자해서”, “공산당이 싫어서” 한국으로 나왔다고 하였다. 아마도 중국의 국공내전 기간 중에 한국으로 건너오게 된 것이라 추측된다.

한 소대가 50여명이 배를 타고 인천 바다에 도착했는거라, 총, 무기다 싣고 인천바다에 (오해받을까봐) 무기는 인천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그 무렵에 도착해서 개인 개인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영감(남편)의 사촌형님 두 명이 대구 에 한명(작은 형), 부산에 한명(큰 형)이 있어서, 형님 찾아간다고 온천장에 (와) 살고, 오자마자 얼마 안되어 6.25.가 터져 분거라.

남편 Y씨는 당시 산둥에 부모와 부인, 아들이 있었으며, 이들과의 왕래는 그가 일본에서 1년간 머물며 일을 할 때 중국으로 편지를 보내 연락을 취한 것 외에 다시 만나지는 못하였다고 한다. 아마도 Y씨는 부인 R씨에게 산둥을 떠날 때의 이야기를 하곤 했던 것일까. Y씨가 어머니(그녀에게는 시어머니)와 이별하던 날 밤, “공산당이 막 시작하는 때라 엄마를 마지막을 보러 갔을 때 (어머니는) 어서 가라며 장롱 속의 싹지를 꺼내 주었다”고 하며,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공산당을 피해 가족과 이별하여 한국으로 온 Y씨의 삶이 재현되었다. Y씨가 죽고 난 후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자 큰 아들이 산둥을 방문하여 큰어머니(남편의 전처)와 이복형제들을 만날 수 있었다. 현재 Y씨의 무덤은 부산 동래에 있으며 산둥에도 “가짜무덤”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R씨의 가족은 산둥과 부산에 거주하며, 이들 가족의 국적은 중국과 대만, 한국(며느리)으로 다양하다.

20세기 중반 한국과 중국의 내전은 화교들의 이동에 영향을 미쳤고, 그 구체적 양상은 가족의 이산과 분산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전쟁과

반공체제는 화교가 ‘중공’이 아닌 대만 국적을 ‘선택’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냉전체제 하에서의 ‘새로운 조국’에 대한 국민적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³⁸⁾ 한국 화교의 재이주 지역으로서 대만이 고려되게 된 배경과 깊은 상관성이 있다. 그러나 1992년 한중수교를 기점으로 산동의 ‘이산가족’을 상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또 중국을 왕래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수교는 동시에 대만과의 단교를 이어졌으며 대만국적의 한국화교가 바로 중국으로 자신들의 고향인 중국대륙으로의 귀환과 국민 아이덴티티를 바꾸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규정해온 60여 년 간의 국민 아이덴티티가 대만이었으며, 2,3세대가 거주국의 현지문화를 수용하며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형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³⁹⁾ 따라서 국가의 정치적 관계는 수교와 단교로 정치적 포지션을 바꿔 가지만, 국민으로서 한 개인을 규정하는 국적은 쉽게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세대를 거쳐 이어져 온 경험의 역사가 한 가족의 범주 안에서 구축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범주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 또한 국가 간의 정치역학에 의해서였다. 이러한 점에서 한 가족의 역사와 한 국가의 역사가 반드시 일치하거나 동질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국적을 개인의 아이덴티티로 등치시킬 수도 없는 것이다.

2. 국적이 다른 가족의 안과 밖

단일민족국가 이데올로기가 강한 한국사회에서 한국화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H씨는 서면에서 엄궁동으로 온 후 20여 년 간 이곳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몇 년 전 남편을 사별하고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둘째 아들 부부가 살고 있으며, 부산의 해운대에 큰아들, 경남 창원 에 막내딸, 그리고 대만에 큰딸이 산다. 그녀를 포함하여 자녀들은 모두는 "F-5"라 부르는 한국내의 거주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국적은 대만이

38) 王恩美, 『東アジア現代史のなかの韓國華僑』 173~174쪽.

39) 한국화교인권포럼 인터넷 사이트의 내용을 참조(http://cafe.naver.com/korean-chinese.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20, 2010년 12월 3일 검색).

다. 그러나 작은 며느리와 막내 사위는 한국인이며 따라서 그녀의 손자들 가운데에서는 한국과 대만 중 한쪽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일이 남아 있다. H씨는 손자들의 국적 선택에 있어서 ‘자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여 가족 안에서의 국적이 H씨의 생활에 어떠한 장애 혹은 ‘문제’의 요인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녀가 말하는 한국사회의 차별은 자녀의 교육과 주거의 문제에서 드러나며 그 이유는 “중국사람”이기 때문이었다.

A: 화교학교가 없어서 부산으로 일부러 오신 거예요?

B: 응. 지금은 전부 한국학교도 많이 가. 안 그래도 (딸이) 엄마 어짜고? 느그 맘대로 해라. 한국학교 가라 뭐 한다고 중국 간다고 해 뭐해, 또 대만학교 가마 모르겠어 요새 어짜겠노 이제 자기들이 해야지.

A: 왜 화교학교를 굳이 보내려고 하셨어요? 한국 학교는....?

B: 안 받아주잖아! 안 받아줘. 중국사람이라고 안받아줘. 중국사람은 집이도 못 샀어. 우리 집이 올진서 우리 시아버지가 대만에서 왔잖아, 돈을 가와서 집을 샀어, 그 대신 우리 명의 못한대. 우리 촌에서 아는 할배 있잖아. 뒤에 좀 못살고, 자꾸 도와주고 우동도 가져다주고 짜장면도 가져다주고 고춧가루도 부어주고, 그 할배 이름 빌려가지고 집을 바꿨잖아. 안 그러면 그 집을 안 팔았지. 남의 이름을 수수 내줘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랐고. 내 아들 여 와서 우리 아저씨 왔다갔다하면서 장사 안하고 왔다갔다하고 그래서 결국엔 팔아버렸어. 지금이야 돈이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지, 그때 중국사람은 집도 못 사요. 그런 차별 있었어. 대만에서 한국사람 얼메 잘 해줘, 대만에도 한국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 얼메 잘해줘. 그런 거 보면 신경질 났드라. 우리 여기서 이런 대우해주는데!(웃음) 어디서 가든 우리 중국사람도 세금 다 내요. 안 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 내!

반면, 본래 “한국사람”이었던 R씨의 사례를 보도록 하자. 그녀는 화교인 왕씨 성을 가진 양아버지의 딸로 자라 화교인 남편 Y씨를 소개 받아 결혼하였다. 그녀를 포함하여 5남매 모두 대만 국적이거나 둘째 며느리는 한국인으로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들들은 한국에 살지만 딸들은 대만에서 살고 있다. 고령인 R씨는 한때 왕씨 성을 가진 적도 있으나 ‘본래’ 자신의 성인 김씨로 다시 바꾸었다. 대만국적을 가지고 있기에

가끔씩 대만의 딸을 방문하며 만약 그곳에서 산다면 노인연금을 받으며 살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연금 없이 살고 있다. 한번은 둘째며느리가 시어머니인 그녀에게 국적을 바꾸는 것이 어떤지 이야기 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작은 며느리가 몸 아파 보름간 있을 때, 친구가 화교한테 시집갔는데, 우리 시엄마 국적 바꿨다 하길래, 우리 며느리는 내가(나를) 중국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마야, - 큰 아들은 식구들에게 중국 말하고 작은 아이들은 “엄마”라고 부르는데 -, 친구 시엄마 국적 바꾼 이야기 하드라고. 그것도 괜찮다 한국이 이젠 많이 넉넉한가 보다, 근데 그 시어머니 집은 많이 어렵나? 아니 그렇지 않다, 아들 며느리가 생활비 안줘도 되고, 국적 바꾸면 할머니는 손자들한테 뭐 좀 사주고, 우리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와서 나한테 하는거라, (이 얘기를 방에서 자고 있던) 작은 아들이 (듣고선) “뭐라고! 엄마 보고 국적 바꾸라고! 우리 막내 아직 어린데 고아 만들라고! (작은 며느리한테) 너 나가! 엄마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아! 우리 막내 고아 만들라고!,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해”라고 화를 내갔고, 내가 “누가 새로 시집보낸다고 해도 나는 안 바뀌, 안가! 나 절대 안 바뀌, 걱정하지마 나 이 자리 안아 있을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아들에게 얘기했어.

중국인 부모사이에서 태어난 H씨는 한국에서 났고 자랐으며, 한국인 부모사이에서 태어났으나 중국인 아버지의 수양딸로 자란 R씨에 대한 사회적 규정은 모두 “중국사람”이다. H씨와 R씨가 한국사회안에서 겪은 사회적 경험과 무관하게 이들은 대만 국적을 가진 한국사회의 외국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설령 R씨가 자신의 혈통에 따라 한국인으로 국적을 바꾸고자 하더라도 이는 가족의 해체와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것이었다. 이것이 중국과 한국, 한국과 대만, 대만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화교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민족성과 국적의 엇갈림이며, 또한 국적은 끊임없이 화교라고 범주화된 사람들의 민족성을 상기시키는 근거로 자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갈등적 국면이 한국화교들에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할 때, 그들을 대만국민으로 탄생케 했던 가장 큰 계기, 곧 한국전쟁은 화교 가족 안에서 어떠한 의미로 작용하고 있을까.

IV. 부산 땅에 앉아서: 가족의 정주화

앞서, 원산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살던 H씨가 부산의 엄궁동으로 오기 까지 이야기 속에는 한국전쟁과 피난민 ‘수용소’(서면의 신촌)의 생활, 그리고 대만과 한국으로 헤어진 가족의 이야기가 있었다.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은 서로 흩어져 피난을 나와야 했고 다시 재회가 이루어진 곳은 부산이었다. 서울에서 빠져 나온 그녀의 친정가족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작은 아버지, 고모, 삼촌’ 등이며, 이들은 아버지가 중국에서 한반도로 이주하였던 식구들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고려된다. 즉 산둥에서 평안도 원산으로 온 친정 가족은 아버지 단신이 아니라 할아버지를 포함한 미혼자녀로 구성된 부부가족이었으리라 짐작된다. 결국 H씨의 가족사 속에 부산은 중국과 한국의 전란을 피해 지나온 긴 여정 속의 ‘피난지’와 같다. 또한 잠시 경북 울진에서 약 10년간 살았음에도 다시 부산으로 돌아온 이유는 아이들이 다닐 학교가 부산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그녀에게 부산은 혼인과 자녀를 키우며 살아온 그녀의 생애 속 중심적 근거지로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 연구자가 그녀를 처음 만난 날은 마침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매스컴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 때였다.⁴⁰⁾ 이런 때 자주 전화도 하지 않던 대만의 큰딸이 그녀에게 안부 전화를 했었다.

딸이 가서 내내 반년 되서도 전화 안 와, 아가 이거. 아들보고 니 누나한테 전화해봐라 가서 전화도 안 오나, 잘 있나 아무래도 신경 쓰였지, 혼자 가서 어찌피 내가 물어보고 이틀 삼일 전화 와서 엄마 나 잘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한 두 달씩 한 달씩 한번씩 전화 걸어봐라 안 그러면 내가 걱정했지, 알았어 엄마, 전화 걸어서(걸곤 했는데). 텔레비전에 (연평도 포격이) 터져가지고 또 전화 와서, 니 마 반년도 전화 안와서 이제 또 전화 와서 뭐해? 엄마 한국에 전쟁 일어났대? 아 됐다! 아니다 괜찮다 걱정도 마라!” (웃음). 전쟁 일어나면 어디가? 갈디 어딴나 여 마 부산 땅 앉으마 죽으마 나 올리 죽으마 다 죽었지마. 한군데 터지면 다 터졌지 뭐(웃음).

40) 북한의 서해안 연평도 포격은 2010년 11월 23일에 일어났고 연구자와 만난 날은 28일이었다.

다시 전쟁이 나서 죽는다 한들 ‘부산 땅에 앉아서 죽으면 죽었지’ 더 이상 다른 곳으로 이주할 생각이 그녀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비단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그녀의 판단도 있었겠지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앞서 그녀는 설령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부산 땅”을 떠나지 않겠다고 마치 그녀자신에게 다짐하고 있는 듯하다. 신촌에서의 피난민 생활과 장사를 하다 그만 둔 아픈 남편을 대신하여 신발공장을 다니고, 집안에서 부업을 했던 그녀에게 삶이 그다지 편안했던 것만도 아니었다. 지금도 연금이나 각종 사회적 서비스도 외국인이므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부산 땅에 앉아’ 떠나지 않겠다는 그녀의 말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피난 왔던 부산 신촌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A(연구자): (피난 와서 서면 신촌으로 들어갈 때) 아무나 큰 집을 받나요?

B(H씨): 식구가 많으면 다 못 자잖아. 그림 좀 큰 거 주고, 대만 사람이 신청해가지고, 우리 화교 들어왔잖아, 그거 전쟁 일어나 가면 통과 안 되잖아, 지금은 패스포트 전부 대만이잖아. 대만 사람이 돈 주고 우린 여기서 사는 거고, 그래 우리 패스포트 전부 대만 꺼. 지금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자기 패스포트 중국에 꺼, 우리 화교만은 대만 꺼. 우리 완전 한국사람 한가지지. 부모들은 중국사람이지. 낳기는 한국에서 낳고 크기도 한국서 컸어. 한국사람 똑 같잖아. 근데 한국사람이 우리 안 받아주잖아! 거기서 와 차별해? 안 그래도 우리 딸이 대만 가든 우리보고 한국 사람이라고 하고 한국사람은 우리보고 중국사람이라고 하고 우린 뭐 갈 데도 없다!(웃음)

A: 그럼 딸에게 무슨 말씀 하세요?

B: 할 수 있나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커야지(웃음). 우리 딸은 부산에서 안 낳았어. 강원도(경북)에서 낳았어. 울진서 다 낳아서 거기 중국학교 없잖아. 그래 거기 나와서 부산으로 돌아와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했지).

[중략 - 집을 한국인 명의로 해야만 했던 이야기 후]

A: 불안했겠어요, 집도 자기 명의로 할 수 없고.

B: 네! 뿌리 없잖아! 내려놓은 뿌리 없잖아! 여기도 안받아주고 저기도 안받아주고, 중국에 가도 호적도 없고.

A: 왜 중국에 호적이 없어요?

B: 피난 일찍이 나왔잖아. 우리 아 친삼촌 중국에 있어. 아버지 집도 거기 있고 우(리) 집도 거기 있어. 우리 친정집이도 전부 대만 갔버렸고. 이리 저리 다 흩뿌려져 버렸잖아. (딸의 목소리로) “그래 엄마 우리 식구들이 없어 파이드라.” 할 수 있나 (손가락으로 이쪽 저쪽을 가르키며) 느그 아버지 식구 다 저기 있고 느그 엄마 식구 다 저기 있고 우리 식구 여 있고(웃음).

A: 지금 한국에 제일 나이 드신 분이 누구세요?

B: 지금 제일 나이 든 사람이 나 밖에 없지~. 아! 있다. 저기 숙모가 있는데, 여기 있다 대만 갔버렸어. 딸네 집에 갔어.

다소 긴 이 대화의 끝 부분에서 연구자는 그녀가 생각하는 부산의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선 부산은 그녀의 친정과 시댁 가족들이 짧은 기간 동안 모두가 함께 모여 살았던 공간이었고, 자식을 키우고 성장시켰던 공간으로서 생활 근거지였다는 것은 잘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그녀가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큰딸이 있는 대만으로 혹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부산 땅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보다 강한 이유는 ‘뿌리를 내리고자 함’에 있었다. 자기 명의 집을 사지 못하였던 남편과 시아버지, 친지가 있다 하나 호적이 없는 고향은 그녀의 생애 속에서 어떠한 재산권도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을 각인시켜주는 경험들이었다. 또한 한국과 대만사이에서 이쪽도 저쪽도 아닌 사람이 되고 있는 현실은 비록 딸의 목소리로 말하였으나, 그것은 그녀가 다짐을 하게 된 이유를 시사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다시 전쟁이 나도 앉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뿌리를 내리려는 것이 그녀에게 본적인 중국의 산동도 아니며 국민이라 부르는 대만도 아닌 피난지 부산인 것은 너무나 역설적인 상황처럼 다가온다. 어쩌면 그녀의 다짐은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없는 막막함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그녀가 비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체념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갈 데가 없다’는 것은 실제 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화교를 두고 만들어진 상황과 만들어진 시선을 반영하고 있는 구술이다. 즉 한국화교가 중국과 대만사이에서 어디에도 속하지 온전히 귀속될 수 없는 복합적 성격(이를 경계성이라고 하더라도)에 기인한 것

으로 그것은 한국사회 안에서 역사적으로 만들어져 온 인식을 대변한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에게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왜 부산땅을 떠나야 하는가? 다시 앞 이야기를 보면 그녀는 이렇게 말했었다.

우리 완전 한국사람 한가지지. 부모들은 중국사람이지. 낳기는 한국에서 낳고 크기도 한국서 컸어. 한국사람 똑 같잖아. 근데 한국사람이 우리 안 받아주잖아! 거기서 와 차별해? 안 그래도 우리 딸이 대만 가든 우리보고 한국사람이라고 하고 한국사람은 우리보고 중국사람이라고 하고 우린 뭐 같 테도 없다(웃음)

“비단장사에 만물장사”를 하던 양아버지 밑에서 자란 R씨의 경우도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바꿀 생각이 없다. 21살에 결혼하여 처음에는 전남 여수에서 살았으나 그녀가 부산 서면의 “피난민 수용소”로 오게 된 것은 그녀의 자녀들이 다닐 화교학교가 없어서였다. R씨는 아홉 살인 큰 아들과 일곱 살 난 작은 아들을 부산으로 와서 둘을 같은 1학년에 입학시킬 수 있었다. 화교학교가 없는 여수에서 살다가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밖에 못 다닐 것 같아 남편을 저녁마다 볶아서 이사 가자 해서 부산에 형님이 계신데 부산으로 가자고 볶아서 여수 잡화상(하는) 사람(이 있어서) 영감이 서로 친해서 부산에 집을 얻어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부산에 와서 다시 두 딸과 아들 하나를 낳았고 5남매를 두게 되었으며, 서면에서만 16년을 살았다. 처음 교육문제로 부산에 오게 된 큰 아들의 나이는 올해로 55세이다. 한국화교와 부산의 상관성은 단지 한국전쟁만이 아니라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는 화교학교가 있었다는 점도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H씨와 R씨 모두 그녀의 자녀 중 딸들은 주로 대만에 살고 있지만 아들들은 부산에 살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한국과 대만 사이에서 어떠한 이점이 있는가를 비교선택한 개인의 생활 전략이 작용한 것도 있다. 아들들의 선택과 달리, 노후를 보내고 있는 H씨와 R씨에게 있어 부산은 피난과 자녀교육을 위해 살아왔던 생활의 근거지였다는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국적을 바꾸거나 또 다른 곳으로의 이동이 줄 편리함에도 이들은 더 이상의 이동을 피하고 정주하려고 하였다. 거주국의 국적으로 바꾸는 현상이 로얄화교아파트의 고령자들에

계도 있지만, 또한 반면에 경제적 편리함을 거부하고 국적을 바꾸지 않으려는 목소리도 있다. R씨는 이렇게 말하였다.

“앉은 자리 가만히 있지 뭐 하러 바뀌!”

“나 혼자 국적 바꾸면 애미애비 없는 거 되는 거 바라지 않아. 애미도 없는 고아 만들 필요 없다!”

R씨와 그의 가족들이 국적 변경을 곧 가족 이산과 해체로 간주하는 것은 왜인가? 연구자가 볼 때, 이는 3국의 정치적 파장 안에서 부침을 겪어 온 한국화교 가족이 전쟁과 국가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바라보는 해석이자 삶의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V. 맺음

지금까지 두 여성의 생애사를 통해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부산 화교 가족의 이야기를 동아시아의 거시적 흐름과 연결하여 살펴보았다. 개항기로부터 청국상인들의 활동무대였던 부산이 한국화교 사회에서 정주지 성격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해서이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부산이 상업적 활동의 중계지였다는 것은 화교 이동의 경로와 인구통계를 통해 알 수 있었으며, 한국전쟁으로 인해 집단적 거주지가 형성되면서 부산은 단지 상업적 근거지로서가 아니라 정주지로서 고려되기 시작하였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한국화교의 전반적인 감소추세와 더불어 부산의 거주하는 화교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여기에 이 글에서 언급한 두 여성의 생애사 속에서 가족들은 가족단위의 이동이 아니라 가족 성원의 개별적 이주로서 분산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주하고 있다는 일반적 경향 속에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주하고자 하는 화교들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두 여성의 생애사 속에서 등장하는 1세대로부터 3세대에 이르기까지 가족성원들은 여러 공간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동시에 현재의 거주지인 부산을 가족의 “뿌리”를 내릴 정주지로서

삼고자 하는 것도 알 수 있었다.

한편, 한국전쟁의 피난지로서 시작된 부산에서의 생활경험은 부산을 정주지로서 생각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로 자리하고 있었다. '화교'의 이주는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간주되지만 그러한 이주의 양상 속에서도 가족의 생활세계가 형성되어 온 지역은 정주지 혹은 생활의 거점으로 고려되기도 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이 점은 혈통과 국적에 의해 화교를 한국인과 구별한다면, 피난지의 생활경험은 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유하는 역사 기술의 주체가 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현재 중국 산둥성 출신이 대다수인 한국화교들은 출신지와 거주국, 그리고 국적의 귀속국이 서로 다르다. 이 글에서와 같이 한 가족의 성원이라 하더라도 출생지와 국적이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며 일상적 생활공간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가령 H씨의 경우 가족의 본적은 중국 산둥성이지만 그녀는 원산에서 태어났고 큰딸은 울진, 두 아들과 막내딸은 부산에서 태어났다. 아들들은 중국어를 사용하지만 둘째 한국인 며느리와 손자들은 한국어를 사용한다. 두 아들과 막내딸은 부산과 창원에 살고 있으나 큰딸은 대만과 캐나다를 오가며 살고 있다. 이들 가족은 하나의 단일한 특성에 의해 범주화가 어렵고 이러한 다양화에 영향을 미친 가장 주요한 배경에는 동북아시아의 역사적 변동이 자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족은 거주지가 나뉘는 이산과 분산을 겪어 왔으며, 국적은 가족 내의 또 다른 경계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 안에서 서로 다른 국민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있는 상황은 단순히 가족의 해체적 상황을 의미한다거나 혹은 가족의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기 이전에 거시적 변동에 대응하여 결과한 개인의 역사로서 주시되어야 한다.

끝으로 국가 간의 변동 속에서 부산 화교의 생애를 분석하고자 하였음에도 이 글은 국가와 개인의 역사를 유기적 관계 속에서 파악하지 못한 채 여전히 큰 간극이 존재한다. 또한 구술자의 중층적 이야기 맥락과 연구자의 해석 사이에도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연구자의 분석한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둔다. 아울러 부산 화교의 역동적 생활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경제와 종교, 교육 등 여러 분야를 함께 다루지 못한 아쉬움은 또 다른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김성례, 「한국 여성의 구술사: 방법론적 성찰」 『젠더, 경험, 역사』 조옥라·정지영 편(서울: 서강대출판부, 2004), 29~87쪽.
- 김원경, 「釜山驛 商店街의 패턴1」 『한국지리학회지』 5(1999), 25~76쪽.
- 김중규, 「화교의 생활사와 정체성의 변화과정: 군산 여씨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0-2(2007), 111~150쪽.
- 김태만, 『내 안의 타자(他者): 부산 차이나스 디아스포라』(부산: 브레인스툼, 2009)
- 문성준·서 탁, 「인천차이나타운의 역할」 『한국언론학보』 52(2008), 5~24쪽.
- 문은정, 「20세기 전반기 馬山地域 華僑의 이주와 정착」 『大丘史學』 68(2002), 155~182쪽.
- 박기철, 「화교네트워크의 정치적 함의 연구」, 『中國學研究』 20(2001), 479~504쪽.
- 朴銀瓊,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화교의 Ethnic identity 문제」 『한국문화인류학』 11(1979), 145~161쪽.
- _____, 「韓國 華僑 社會의 歷史」 『震檀學報』 52(1981), 97~128쪽.
- _____, 「화교의 종족 정체성과 이동의 관계」 『현상과 인식』 23(1982), 180~216쪽.
-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釜山市史』 제3권(부산: 대원인쇄문화사, 1991)
- 孫承會, 「1931년 植民地朝鮮의 排華暴動과 華僑」 『中國近現代史研究』 41(2009), 141~165쪽.
- 양필승·이정희,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5)
- 李丙仁, 「近代中國의 海外移民과 ‘故國」 『東洋史學研究』 103(2008), 145~180쪽.
- 이정희, 「20세기 전반기 대구지역 화교의 경제적 활동」 『大丘史學』 80(2005), 71~102쪽.
- 이종우, 『한국 화교의 현지화에 관한 연구: 부산 거주 화교를 중심으로』(부산: 동아대학교, 2007)
- 이창호, 「한국화교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의 공간: 인천 화교의 관시(關係)와 후이(會)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4(2008), 75~122쪽.
- _____, 「차이나타운의 재개발과 의미의 경합: 인천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41(2008), 209~248쪽.
- 장세훈, 「부산 속의 아시아」 부산 초량동 중화가의 사회생태학적 연구 『경제와 사회』 81(2009), 300~373쪽.
- 최승현, 『화교의 역사 생존의 역사』(인천: 화약고, 2007)

- _____, 「화교네트워크 연구의 현실적 의의」 『中國人文學』 37(2007), 549~568쪽.
- 한동수, 「인천 청국조계지 내 공화춘의 역사변천에 관한 연구」 『中國學報』 60(2009) 371~393쪽.
- 韓祐勳, 『韓國開港期の 商業研究』 韓祐勳全集刊行委員會 편(경기도: 한국학술정보[주], 2003)
- 황보영희, 「부산 淸國租界地에 관한 연구」 『港都釜山』 25(2009), 411~425쪽.
- 정혜중, 「開港期 仁川 華商 네트워크와 華僑 정착의 특징」 『中國近現代史研究』 36(2007), 1~27쪽.

Fredrik Barth(ed.), *Ethnic Groups and Boundaries: The Social Organization of Culture Difference* (Illinois: Waveland Press Inc., 1998).

- 王恩美, 『東アジア現代史のなかの韓國華僑』(東京: 三元社, 2008)
- 千田稔·宇野隆夫 編, 『東アジアと半島空間: 山東半島と遼東半島』(京都: 思文閣出版, 2003)
- 許点淑 「在韓華僑社會のエスニック・アイデンティティの形成と變容: 言語生活 職業變遷 婚姻觀念 中心に」 『동북아문화연구』 11(2006), 227~244쪽.

- 영남일보, <대구 화교 100년 그들의 발자취와 희망 1>(2005.9.7.)
- 부산일보, <부산 속의 세계, 세계 속의 부산: 대만과 한국>(2006.9.2.)
- 파이낸셜뉴스, <부산 동구 차이나타운 세계적 관광지로 개발>(2007.9.26.)
- 법무부, <보도자료: 영주권 취득이 보다 쉬워졌습니다>(2008.8.4. www.moj.go.kr, 2010년 12월 3일 검색)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 연도별 (홈페이지 www.moj.go.kr, 2011년 1월 19일 검색)

A Meaning of the Overseas Chinese's Nationality and Their Family Dispersal in Busan

An, Mi-Jeong*

History of the Overseas Chinese(*Hwagyo*) in Korea has deeply been related to history of North-East Asia and the Cold War in 20th century. This thesis addresses one's life history which was developed in political movement among Korea, China, Japan and Taiwan. Macroscopic social changes among those countries led dramatic changes of the Overseas Chinese population in Korea. This thesis examined microscopic aspects of the changes through the life history of the Overseas Chinese in Busan. Unlike the early stage, political aspect(Korean War) 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on formation of group habitation in Busan which was evacuation during the Korean War. Busan was the biggest area for the Overseas Chinese however its population has been decreased since the Korean War.

In case of Ms. H, Chinese Civil War and Korean War and Cold War have intervened to her family immigration. Although these political background has made her movement, she hopes to settle down in local society. The Overseas Chinese in Korea are regarded as different nationality or different ethnic group but it does not necessarily means that the Overseas Chinese are 'Chinese (or Taiwanese)'. Ms. R is Korean but has Taiwan nationality and a member of Overseas Chinese community. However social boundaries which divides by nationality has become main factor that foments internal conflicts and tension among families. Likewise, most Overseas Chinese people who happened to have Taiwan nationality through the Korean War have different one's native place, current

* Institute of International Maritime Affairs, Korea Maritime University
/ gasirian@hanmail.net

residence and nationality. This cross-border reflects history and political landscape.

Key Words Overseas Chinese(*Hwagyo*), Northeast History, Korean War, Family Dispersal, Nationality, Life History, Busan

| | | |
|------------------|------------------|-------------------|
| 논문투고일 : 2011.2.8 | 논문심사일 : 2011.3.7 | 게재확정일 : 2011.3.16 |
|------------------|------------------|-------------------|

